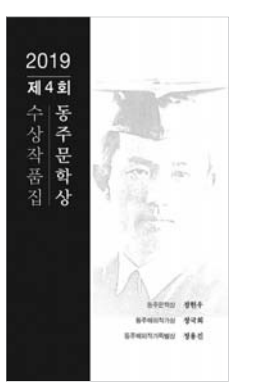
시, 자본의 힘을 넘어 시대의 힘이 되다

제4회 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정현우 시인 '슬픔을 들키면…' 등 실려
30일 서울 조계사서 시상식



정현우 시인

정국희 시인

정용진 시인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4회 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발간됐다.

올해부터 윤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30명이 시집 응모를 했다. 이 가운데 13명의 원고가 예심을 통과했으며 5편의 후보작품이 최종본심에 올랐다.

이번 제4회 동주문학상 수상작품집은 상의 명칭이 바뀌고 첫 출간된 시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의 윤동주서시문학상의 정신과 취지를 토대로 하면서도 "시가 지닌 자본의 힘을 넘어 시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강력한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수상작품집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정현우 시인의 '슬픔을 들키면 슬픔이 아니듯이' 외 4편이 실려 있다.

이경림·나희덕 시인과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심사평에서 "정현우의 시는 매우 선명하고 청신한 이미지와 안정되고 균질적인 언어 배열의 능력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음악적 자의식과 함께 서정적인 정감의 언어를 밀어붙이는 힘도 최대치로 느껴졌다"며 "고요하고 침착한 심상을 갈무리해가는 능력은 여러모로 귀 기울일 만한 것이었다"고 평했다.

경기도 평택 출신인 정 시인은 경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시인의 악기상점' 등 앨범을 발매한 음유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현재 KBS 라디오, OBS 라디오 등에서 구성작가로 활동 중이다. 수상작품집에는 자선추천작 '구와 멍 구렁이 구덩이' 외 12편도 수록돼 있어 수상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수상작품집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한글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동주해외작가상 수상작인 정국희 시인의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을 거처로 삼았다' 외 4편도 실려 있다. 정국희 시인은 2008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모녀'가 당선됐으며 미주시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완도 출신인 정국희 시인은 "눈물을 흘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내 눈은 눈물바람을 일으켰다"며 "입속에 혀를 숨기고 며칠을 보냈다. 입을 벌려 자랑을 하면 바람이 시샘할 것 같아서였다. 아니, 막상 윤동주 상을 받고 보니 윤동주 시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윤동주 시인의 민족애에 대한 깊은 뜻을 펴 나가는 일을 시로써 이어가는 시인에게 주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의 주인공 정용진 시인의 '유기농 상표' 외 4편 등 다수의 시들도 만날 수 있다.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한 정용진 시인은 1971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1973년 '지평선'으로 등단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문인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이번 수상작품집에는 각 부문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작가연보, 심사평 및 추천의 글, 근작시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심사 경위를 비롯한 선정 작품 의미 등 올해 동주문학상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는 서문에서 "무수히 별을 헤고 있는 시인들과 손잡고 그의 방향을 따라가려 한다. 손잡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내게는 별이다. 윤동주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동주문학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집을 만들었다"며 "지도에도 없는 곳까지 우리의 시가 곳곳에 실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권의 수상집을 윤동주가 건네는 시대의 위안으로 받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주문학상 수상작

슬픔을 들키면 슬픔이 아니듯이

정현우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어둠 속에 손을 담그면 출렁이는 두 눈, 검은 오늘 아래 겨울이 가능해진 밤, 도로에 납작 엎드린 고양이 속에서, 적막을 뚫는 공간, 밤에서 밤을 기우는 무음, 나는 흐릅니다. 겨울 속에서 새들은 물빛의 열매를 물어 날아오르고, 작은 세계가 몰락하는 장면 속을 나는 흐릅니다. 풀잎이 떨어뜨리는 어둠의 매듭이 귀와 눈을 먹먹히 묶고, 돌과 층층이 쌓이는 낮과 밤으로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라지기 위한 은유는 모두 내게 필요 없는 것, 죽음은 함께할 수 없는 것, 그러니 각자의 슬픔으로 고여 있는 웅덩이와 그림자일 뿐입니다. 묘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바깥에 닿는 비문, 발소리를 듣는 동안, 괄호를 치는 묵음은 그들이 죽인 밤을 기록하는 서(恕), 그림자는 순간 쏟아지는 밤의 껍질, 우리를 눕히는 정적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의 죄와 형벌, 지우고 싶은 묘비명 같은 것이나 수렵은 시작되었고 검은 고요로 누워 흘러갈 뿐입니다. 간밤의 꿈을 모두 기억할 수 없듯이, 용서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태어날 수 없듯이, 용서되지 않는 것은 나의 저편을 듣는 신입니까, 잘못을 들키면 잘못이 되고 슬픔을 들키면 슬픔이 아니듯이, 용서할 수 없는 것들로 나는 흘러갑니다. 검은 물속에서, 검은 나무들에서 검은 얼굴을 하고, 일몰하는 곳으로 차들이 달려가는 밤, 나는 흐릅니까. 누운 것들은 흘러야 합니까.

광주 공무원교육원서 26일부터 한국학 전문강좌

이종범 원장

호남한국학 보급과 인문학 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학 전문 강좌가 마련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광산구 소촌동)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며 매일 두 차례(오전 10시와 오후 12시 50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26일은 '민속학'(이경엽 목포대 교수)과 '한문학'(김대현 전남대 교수) 강의가 열린다. 이어 28일 '유가철학'(박평선 성균관 전 교무부장), '고려사'(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되며 29일 '사상사'(노관범 서울대 교수), '고문서'(김현영 한국고문서학회 명예회장)가 예정돼 있다. 12월 3일 '사상사'(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시가문학'(김신중 전남대 교수)이 펼쳐지며 12월 5일에는 '사회사'(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고고학'(조현종 전국립광주박물관장)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12월 6일에는 '사상사'(오후 1시·백승종 서강대 전 교수), '조선사'(오후 3시20분·광주대 교수)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모집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방학예연구사(일반 임기제·7급 상당) 1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전시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국내·외 전시 기획 및 부대 행사 추진, 미술 관련 학예(조사·연구·수집·전시 보존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12월 3일 서류 전형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민요·팝송 등 한자리서 즐긴다

앙상블 깐띠아모 정기연주회
30일 금호아트홀

세계 민요를 비롯해 팝송, 성가곡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앙상블 깐띠아모 제4회 정기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세계민요, 영가, 바이올린 솔로 무대, 성가곡 등 6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미국민요 '그는 떠났어요', '위픈푸프송', '스카이보드 송', 영가 '아무도 몰라 나의 슬픔', '성령을 느낄 때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가스펠 트레인' 등이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성가곡 '즐거운 성탄 맞으세요', '우리 다같이 무릎 꿇고서', '북치는 소년'과 한국민요 '아리랑', '강강술래' 등이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유랑의 무리'를 부르며 장식한다. 지휘는 정국주(GIC 시민합창단 지휘, 전 전남대 합창단 지휘)가 맡았고 소프라노 박계·박주경·한미자, 알토 김은희·안정주·성화진, 테너 신경구·김명섭·김성현, 베이스 한상순·이상률·김철욱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 찬조출연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선보인다

앙상블 깐띠아모는 아카펠라혼성중창단으로 지난 2015년 창단됐으며 이탈리아어로 '함께 노래하다(Cantiamo)'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들은 민요, 가곡, 영가, 성가 등 클래식에서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아카펠라 중심의 연주 활동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30일 공연을 갖는 깐띠아모 앙상블.

백호임제문학상에 정진영 작가 선정

수상작 '침묵주의보'
나주문학상 오성인 시인

제2회 백호임제문학상에 정진영 소설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침묵주의보'이며 상금 2000만원.

백호임제문학상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열고 제2회 백호임제문학상에 정진영 소설가의 소설 '침묵주의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 '침묵주의보'는 일상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잔악한 권력 시스템과 폭력성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소설이다. 작가는 일간지 기자이자 소시민이 겪는 사건을 통해 우리 일상에 만연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한편 자의와 다르게 동조자 혹은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삶에 주목한다.

정 작가는 "'침묵주의보'는 남도에서 태어났다. 2017년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광양의 한 암자에 머물며 이 소설을 집필했다. 당시 언론계의 현실에 회의를 느꼈던 저는 다니던 직장을 구만두는 배수진을 치고 소설 집필에 몰두했다"며 "그로부터 2년 후 이 소설이 백호 임제 선생의 고향 나주에서 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기리는 문학상 영예를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 출신의 정 작가는 현재 중앙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장편 '발렌타인데이'로 제3회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나주지역에 거주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나주문학상(상금 500만원)에는 광주 출신 오성인 시인의 '푸른 눈의 목격자'가 선정됐다. 목포대 국문과를 졸업한 오 시인은 2013년 '시인수첩'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지원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15 (나주신협앞 다리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정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요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통)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합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샤시 + 피엔에고샤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타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죽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